

##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그림책 프로그램 연구\*

### A Study on the Picturebook Program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지상선 (Sang-Sun Ji)\*\*

####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picturebook program from a Christian worldview targeting non-Christia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tegrate the values of picturebooks and the Bible by using picturebooks that contain a Christian worldview. There were nine participants in the picturebook program stud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ogram participants created a Christian worldview and made it their new identity by listening not to the picturebooks themselves containing the Christian worldview but to picturebooks, Bible texts, and stories about great men of faith and by making their own stor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sprouting the seeds of a Christian worldview in non-Christian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discussions were made on how to educate the Christian worldview, spread of Christian worldview contents using mass media, and the development and conversion of Christian symbols and metaphors.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picturebookpProgram, female college students, narrative identity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14일 최종수정, 3월 15일 게재확정

\*\* 연구법인질적연구HA연구소 책임연구원(Principal Researcher, HA Qualitative Research),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44, 3층, moathink@hanmail.net.

## I. 서론

현대인들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을 막론하고 기술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맹랑함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주의는 인간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했지만,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관계를 해체하고 모든 것을 기술의 원리에 맞춰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기술주의는 자연과 문명 그리고 인간을 객체로 전락시키고 기술은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기술 사회에서는 인간은 물론 하나님도 사라지고 오로지 기술문명만 남게 된다(Punzo, 1996; Ellul, 2008; 이상민, 2021). 이와 같은 기술주의는 허무주의적 자녀라고 할 수 있다. 허무주의는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초월성만 인정하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있는 내재성을 부인하며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는 이신론(理神論, deism)과 물질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에 기초하고 있다(최용주, 2019: 96). 허무주의와 기술주의 연합은 전통적인 가치 체계의 붕괴와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허무주의는 인간의 의미 있는 행동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인간을 기계로 환원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인간은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고 윤리적 삶은 물론 궁극적인 관심조차도 사라지게 만든다(Sire, 2020: 123). 이처럼 기술주의와 허무주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의 세계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용준, 2019: 98-100). 기술주의, 허무주의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또한 윤리적 인간의 근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통상적으로 모더니즘(modernism)의 대안으로 나타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이후 인간의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조라 할 수 있다(전광식, 1994: 21-29).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이어(Sire, 2020)의 책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6th, ed.』의 chapter 9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사라진 수평선(The Vanished Horizon: Postmodernism)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해체했지만 그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 준칙의 부재와 진화론, 문화적 상대주의 그리고 무신론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용준, 2022: 90-91). 이와 같은 기술주의, 허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물론 전도 대상인 비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철학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들의 사회와 역사 그리고 세상을 보는 삶의 조망이다(신국원, 2004: 133-140). 따라서 세계관은 항해자의 나침판이나 운전자의 지도와 같으며 세계관에 따

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계관은 삶의 목적을 찾고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며 동시에 올바른 사고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천 윤리로써 삶의 목적과 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비전,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Holme, 1983 ; 조용훈, 2005). 이처럼 세계관은 Sire(1990: 116-36)에 의하면 일곱 가지 질문들과 관련된다. 그 일곱 가지 질문은 궁극적 실제, 인간, 피조세계의 본질, 죽음 및 사후 세계, 지식과 이성, 옳고 그름의 판단, 역사의 의미이다. 세계관에서 이 세계의 근본적 실제가 물질인지 신인지,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인지 또 다른 시작의 통로인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지 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인지, 도덕의 근거가 인간과 문화인지 신인지, 역사의 의미가 변증법적 권력 투쟁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근본적 물음을 다룬다. 세계관은 이론이나 과학보다 앞선 것이며 철학적 사고 이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문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행동의 근거가 되는 신념이나 태도이다(신국원, 2005: 18). 전광식에 의하면 세계관의 본질은 사고 이전의 것이며 실재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조명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들이 가지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다(전광식, 1998: 37-40). 이처럼 세계관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틀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개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사회가 어떠한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과 특성이 규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올바른 세계관은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지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인 소득 양극화, 계층과 세계관의 투쟁,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 등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행동 지침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간의 본질적 사랑은 점차 희박해지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에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립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한국교육의 문제와 기독교 대안 모색(고영삼, 2022),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개념과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 핵심역량 도출 방안(유재경, 2018), 기독교 대학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대한 모색(김홍근, 2011),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돌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교육의 원리(유경상, 2016),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 개발(정대현 외, 2014) 등이 이뤄졌다. 기독교 세계관 그림책 연구는 그림책 출판과 보급의 시급함을 시사한 연구(강은주, 2000),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현은자, 2003),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템토의 <빛나는 아이> (2016) 해석(현은자·김주아, 2019), 뉴에이지(new age) 그림책의 기독교 조명(이수형·현은자, 2022) 등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그림책 연구가

아직 부족한 편이다. 한편, 기독교 그림책 관련연구는 대부분 양적연구였으며 상대적으로 질적연구의 비율이 낮았고 연구대상은 유아의 분포가 높았다(김민정, 2021: 245-246).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의 영역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인들의 일터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세상 속 일터라는 곳에 복음 전파의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직업 활동과 실천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라는 탐구심이 연구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인 독서치료사가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그림책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접하게 하고 자기 삶의 지향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 속 문화 매체인 그림책을 도구로 삼은 것은 그림책의 치유 능력과 이야기가 가진 세계의 구성 능력 때문이다. 이야기는 도덕적 교훈과 함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를 이야기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Bolt, 2006: 167). 본 연구는 그림책을 매개로 비기독교인 여대생들이 영혼 속에 숨겨져 있던 세계관의 발현과 이를 구체적 삶의 전략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림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적 텍스트를 사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고 유연하게 삶의 장으로 연결하였다. 연구결과는 비기독교인들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울 수 있다는 통찰과 함께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II. 연구방법

### 1. 그림책 선정

본 연구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태동과 발현을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모두 8권의 그림책이다. 그림책의 분류방식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현은자 외 2019). 기독교 세계관의 태동과 발현을 위해 기독교육전문가, 그림책 전문가의 자문과 목사님의 감수를 받아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그림책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전문가 3인을 통해 20-30권을 1차 선정하였고 상호주관성(간주관성, inter subjectivity)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최종 그림책을 2차 선정하게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그림책들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Final Selected Picturebook

구분	국내제목	작가	출판연도	성령의 열매
1	내가 태어난 날에 곰도 춤을 추었지	Nancy Tillman	2010	사랑
2	앵무새 해럴드	Courtney Dicmas	2013	사랑과 양선
3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2015	양선
4	온 세상을 노래해	Liz Garton Scanlon & Marla Frazee	2015	희락
5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다나카 우사	2005	사랑
6	리디아의 정원	Sarah Stewart	2007	사랑
7	미스 럽피우스	Barbara Cooney	1985	화평과 양선
8	토끼의 의자	가키모토 고우조 & 고우야마 요시코	2006	양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첫 번째 그림책은 「앵무새 해럴드」이다. 코트니 디마스(Courtney Dicmas)의 작품이다. 그림책의 주인공 앵무새 해럴드는 어떤 소리든 한 번 들으면 똑같이 흉내는 재주 많은 새이다. 앵무새 해럴드가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신의 소리를 찾기 위해 해럴드는 바깥세상으로 나가야만 한다. 익숙한 환경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과 본토를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갔듯이(창 11:29-12:9)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익숙한 현재 상황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모험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낸 앵무새 해럴드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럴드는 다양한 소리를 직면하며 자기 소리를 낼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성찰하게 된다. 이렇듯 세계 내 소리를 통해 자기만의 세상을 채워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번째 그림책은 「내가 태어난 날에 곰도 춤을 추었지」이다. 낸시 킬먼(Nancy Tillman)의 작품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상상하면서 일기를 썼다. 본 그림책은 인간이 태어난 날은 그 자체가 축복이며 기적임을 담고 있다. 기독교의 예수탄생은 온 인류에게는 축복이며 기적인 동시에 서양 역사가 기원 전후로 구분되는 기점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며 생물학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번째 그림책은 「두더지의 고민」이다. 김상근 작가의 작품이다. 본 그림책에는 걱정 많은 두더지가 등장한다. 머리 위로 눈이 쌓이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눈덩이를 굴린다.

하지만 두터지는 자신의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써 족하다. 이렇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온전히 보라고 하신다(마 6:25-33). 새들은 씨뿌리는 걱정, 거두는 걱정, 곳간에 모아 두는 무거운 걱정을 하지 않기에 하늘을 가볍게 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메시지처럼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족하다(마 6:34).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고민을 만들어 가며 그 고민을 두터지가 굴린 눈덩이처럼 굴린다. 본 그림책에서 걱정과 고민, 불안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네 번째 그림책은 「온 세상을 노래해」이다. 리즈 카튼 스캔런(Liz Garton Scanlon)와 말리 프레이지(Marla Frazee)의 작품이다. 본 그림책은 세계가 다양하다는 이해와 함께 자신의 세계 내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위치 지을 것인가를 탐구하게 한다. 어느 여름날 해변, 오빠와 여동생은 돌을 나르고 모래성을 쌓는다. 사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가족의 따사로움과 온 세상을 이루는 풍경이 그림처럼 교차된다. 본 그림책은 긍정적인 수용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와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본다. 따라서 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림책에서 사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본다는 것은 사물의 위치를 정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음(마 18:20)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섯 번째 그림책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이다. 다나카우사(田中うさ)작품이다. 별뿔별, 귀여운 햄스터 등이 등장한다. 본 그림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가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준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오늘은 현재이고 그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고 6:1-2) 따라서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개인이 축적한 재산이나 재물 등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개인은 청지기이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섯 번째 그림책은 「리디아의 정원」이다. 본 그림책은 사라 스투와트(Sarah Stewart)와 데이비드스몰(David Small)의 작품이다. 주인공 리디아는 부모에게 떨어져 도시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간다. 외삼촌은 무뚝뚝하고 정을 주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리디아는 아름다운 리디아만의 정원을 가꾸며 외삼촌을 변화시킨다. 리디아의 정원 속에 등장하는 리디아는 요셉(창 37:2-50:26)을 떠오르게 한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 땅으로 가지만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사의 위기에서 구해낸다. 그리고 바로 왕을 변화시킨다. 본 그림책은 미국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리디아는 대공황 시절 가난을 피해 도시로 갔지만 도시의 화려함

과 풍족함보다는 암울한 회색빛 도시를 밝은 정원으로 바꾸어 간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한 곳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지양한다.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데까지 복음과 사랑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든 땅을 떠나 험한 세상으로 나아간다. 요셉과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리디아 역시 차가운 도시로 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곱 번째 그림책은 「미스 럽피우스」이다. 본 그림책은 바바라 쿠니(Barbara Cooney)의 작품이다. 그림책의 주인공 미스 럽피우스는 자기 집을 떠나 여행을 했고 가는 곳마다 바위 틈새에 작은 꽃씨를 뿌렸다. 그는 들판, 고속도로, 언덕, 학교, 교회 뒷마당에도 꽃을 뿌렸다. 미스 럽피우스가 뿌린 꽃씨는 활짝 피워 환한 꽃밭이 되었다. 미스 럽피우스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했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기독교인들의 과업이자 의무로 가르치고 있다.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은 미스 럽피우스와 유사하다. 사도바울은 다양한 위험이 득실거리는 이방인들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씨를 뿌렸다. 미스 럽피우스가 바위 틈새에 뿌린 꽃씨가 뿌리를 내려 활짝 꽃을 피웠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로 1:1-7)은 이방인들에게 강팍(剛愎)한 가슴 속에 꽃을 뿌렸고 꽃이 피었다. 이렇듯 기독교 세계관에서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꽃을 피우는 존재, 꽃 뿌리기라는 작업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덟 번째 그림책은 「토끼의 의자」이다. 본 그림책은 가키모토 고우조(かきもと こうぞう:柿本 幸造)와 고우야마 요시코(かやまみこ:香山 美子)의 작품이다. 그림책에서는 나누는 기쁨을 통해 긍정적인 수용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토끼는 작은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아무나’라는 팻말을 만들어 작은 의자 옆에 두었다. 그리고 작은 의자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본 그림책에는 토끼의 의자를 두고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동물들은 의자에 놓인 음식들을 먹는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놓아두고 간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五餅二魚—奇蹟)(마 14:17-21)을 담고 있다. 배고픔에 줄인 사람들에게 예수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서 배를 불리게 먹인다. 이러한 성경의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 귀중하지만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영향력은 커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귀한 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한 메시지의 확인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자기 것을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겨자씨의 비유(마 17: 20)와도 유사하다.

## 2.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각 대학과 학회 사무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App)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공고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은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다. 선정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12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12명 참여자 중 3명은 개인적 이유로 탈락하였고 최종 9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자는 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학교생활의 대인관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이 남성들보다 사회문화적인 젠더(gender)의 차이에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되었다(유재언 외, 2019: 17). 특히 여성은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들은 실천적 연대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도전, 희망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닌 개인들은 낯선 곳으로의 여행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불안하고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닌 도전 정신과 희망, 진취적 기상은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려는 메시지는 이들의 자아정체성 강화와 자기 앞에 놓인 생을 직면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자발적 동의를 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번호	프로그램 참여자 별칭	성별	연령	교회 관련 경험
1	똑바로	여	20	없음
2	사랑	여	21	없음
3	너울	여	22	없음
4	도닥이	여	22	초등학교 때 엄마의 강요
5	토끼	여	21	없음
6	우주	여	20	친구 따라 딱 한 번 가 본적 있음
7	별	여	20	없음
8	아롱이	여	21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를 다님
9	햇살	여	22	없음



### 3. 프로그램 진행 과정

프로그램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연구자는 그림책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도록 하였으며 그림책에 대한 해석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림책을 읽은 후 그림책의 내용 분석과 비판은 물론 자기 이야기를 그림책 내용과 연결하여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였으며 프로그램은 총 9회기, 회당 1시간이 소요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Program Progress

프로그램 내용				
회기	활동목적	그림책	주요 활동	성령의 열매
1	만남	워크지	- 그림책들을 소개하기 - 별명 짓기 및 수업 약속	절제
2	긍정적 스트로크	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 내 이름의 의미 - '내가 태어난 날엔' 상상 일기글쓰기 - 떠오른 이야기 나누기	사랑
3	긍정적 자기수용	앵무새 헤럴드	- 나만의 소리 찾기 발견하기 - 동료들의 소리 관찰하기 -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랑과 양선
4	존재의 의미 발견	두더지의 고민	-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 - 발상의 전환 및 오늘의 수업 느낌표 - 온전히 말김의 의미 탐구	양선
5	긍정적 수용 & 존재의 의미 강화	온 세상을 노래해	- 세계 내 존재 탐구 - 이름 불러주기를 통한 의미 발견 - 기독교 세계관이 던지는 삶의 질문	희락
6	자기문제 구분 및 발상의 전환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 그림책 관찰하기 - 서로에게 은혜의 편지 선물하기 - 값없이 받은 선물이 의미	사랑
7	자기 분석을 통한 의미발견 1	리디아의 정원	- 닦아 간다는 의미 발견 - 인물이입을 통한 변화의 달란트 발견 - 에스더와 요셉 이야기	사랑
8	자기 분석을 통한 의미발견 2	미스 럼피우스	- 기억에 남는 장면과 문장 -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상상 - 사도바울과 조선의 선교사 꽃씨	화평과 양선
9	긍정적 통합수용	토끼의 의자	-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 - 넓은 안목으로써 기독교적 세계관	양선

#### 4.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술자료를 원자료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프랑스의 개신교 철학자인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삼중의 모방(triple mimesis) 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인 미메시스(mimesi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 현실의 재현 모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눴고 현상계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이데아의 모방으로 보았다. 현상계는 이데아에 비해 가짜세계, 열악한 세계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은 하나의 플롯 구성을 통해 의미 있는 또 다른 세계로 형상화하는 것으로써 중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서사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았다(Ricoeur, 1985).

리코르는 삼중의 모방(triple mimesis)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하지만 그는 문학이나 예술, 역사적 이야기는 텍스트가 매개하지 않은 정체성은 허구라고 하였다. 이것은 리코르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그의 저서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마태복음 16장 24~25절을 인용하였다. 그는 성경적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고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하기 위해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구술하였다. 자기를 버린 이후 자기 이야기를 새롭게 쓸 때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삶과 이야기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삼중의 모방(triple mimesis)’은 리코르(Ricoeur, 1985)의 「시간과 이야기」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림책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새롭게 구성한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삶의 기획 등을 분석하였다. 삼중의 모방(triple mimesis) I, II, III의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Triple mimesis I, II, III

Triple mimesis	단계	단계 내용	분석 관점
모방(mimesis) I	전(前)이해 단계	-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내면에 머물러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 자기 이야기를 통해 개인이 지닌 기본적인 자기인식 드러내기	살아 온 이야기와 환경, 주변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
모방(mimesis) II	형상화 단계	- 전이해 단계에서 개인들은 자신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지닌 단계라면 형상화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러내기 - 모방(mimesis) II는 모방(mimesis) I의 확장	그림책을 매개로 한 정체성
모방(mimesis) III	재형상화 단계	- 형상화 단계에서 구성한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며 수정해 나가기	새로운 정체성에 기반 한 삶의 이야기

####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제고 전략

#####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고 학교 등은 기호로 표시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이를 서명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모든 구술데이터는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고지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당한 사례로 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게 공익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2) 질적연구의 타당성 제고 전략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Flick(2018)이 제시한 동료 지지집단으로 구성하여 접근하였다. 그림책 전문가 1인,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1인을 지지 집단으로 위촉했고 목사님 1인에게 감수를 받았으며 연구자의 해석이 객관적이며 공감적 이해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둘째, Stake(2008)가 제시한 다원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술자료 이외에도 그림책 자료, 그들의 개인들의 기록물들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현상학적 수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생생한 표현을 구술 데이터 형식으로 제시했고 일화(anecdote) 중심의 글쓰기를 실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스토리의 전개와 구성에 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공감을 불러일으켜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이야기 중심의 전개는 매우 중요하다.

### III. 연구 결과

#### 1. 내가 태어난 날에 곰도 춤을 추었지: 사랑



Figure 1. The picturebook: On the Night You Were Born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태어난 날을 상상하면서 일기를 쓰라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그 전 세계적 사건을 연결 지었다. 이는 개인의 탄생은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날을 단순히 년 월일로만 기억하다가 이를 ‘기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로부터 자신의 출생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1 <똑바로>는 자신이 태어난 날에 무지개가 뜨고 지구에서 향기가 난다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2 <사랑>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축하 인사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고 구술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자 3 <너울>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타났다고 구술하였다. 그 길 옆에서는 고래가 뛰면서 노래를 부르고 큰 바다 조개에서 자신이 태어났다고 구술하였다. 조개에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은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교회를 다녀 본 경험이 없는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그가 모세의 기적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 또 다른 질문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7 <별>은 매스컴에서 모든 차량이 정체되어있을 때 응급차량이 지나가며 길을 비켜주는 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했다고 구술하였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책 표지들의 출처는 온라인 서점, YES24(<http://www.yes24.com>, 2023년 2월 27일 접속)이다.



Figure 2. The birth of Venus by Botticelli

“모세를 잘 모르지만 텔레비전에서 모세의 기적이 자주 나와요. 차들이 정체되어 꼼작도 못 할 때 구급차가 지나가면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싹 옆으로 비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도 그런 기적 같은 날로 글을 썼어요.” (별)

이처럼 대중 매체 또는 영화 등에서 표현하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이나 상징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프로그램 참여자 5 <토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병원에서 같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구술하였다. 이와 같이 그가 스스로 만든 탄생의 서사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파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 9 <햇살>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초록이 빛나는 여름날 햇살이라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보기 전 자신의 탄생을 생물학적인 사건으로 보았지만,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하며 연구자의 탄생은 기적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사랑하는 존재로 아름답게 세상을 꾸며야 한다는 의미로 구술하였다.

“그림책에서 내가 태어난 날에 곰도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탄생은 신비롭고 축복이고 기적 인거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곰까지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잘 몰라도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의미가 있다. 뭐 그런 거.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햇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성경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건전한 대중 매체를

통해 모세의 기적이라는 상징을 자신들의 의식 안에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과학주의 속에서 인간의 탄생을 남녀염색체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절대자로부터 부여된 생명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프로그램 참여자 2 <사랑>이가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첫 절을 함께 노래 불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 2. 앵무새 해럴드 : 사랑과 양선



Figure 3. The picturebook: Harold Finds a Voice

「앵무새 해럴드」는 자신만의 고유한 세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림책의 내용처럼 자신의 개성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야만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살아왔다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대학 선택과 직업까지 부모 또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며 심지어 결혼까지도 세속적인 관점의 남자를 찾으려고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읽어가면서 순수함을 소환하여 사회에 묻든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 스트레스, 실존적 방황 등 모두 존재론적 모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앵무새 해럴드를 통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어 왔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구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아브

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아브라함을 역사적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앵무새 해럴드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앵무새 해럴드가 안정된 집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감으로 새로운 자기를 얻었듯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고향을 버림으로써 더 큰 세계를 얻었다고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1 <똑바로>는 자신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편안함과 안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하겠다는 의미의 구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술을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불안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현재 것을 지키려 했기에 불안했으며 지키려는 스트레스가 자신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앵무새 해럴드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만나는 소리가 공포스럽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적을 만났겠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잖아요. 그 당시는 치안도 지금처럼 좋지도 않고. 외국인을 보호하는 법도 없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했잖아요. 그건 신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부모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어 부모를 원망할 때도 많았어요. 신이 있다면 저를 진짜 도울까요? 도전하는 용기, 새로운 길을 나서야겠다, 내가 가진 것을 떨쳐버리자. 새로운 길을 나서자. 이런 생각을..., 아직 용기가 필요하지만 졸업하고 계속 도전하려고 해요.” (똑바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구성한 세계관은 자신의 애착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양선의 모험심이라고 할 수 있다.

### 3. 두더지의 고민 : 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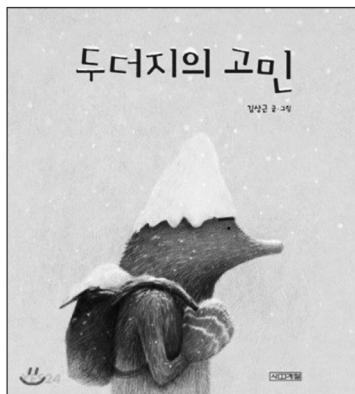


Figure 4. The picturebook: The Mole's Troubles

「두더지의 고민」은 걱정 많은 두더지가 등장한다. 그는 걱정을 달고 사는 존재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두더지의 고민과 자신의 고민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들은 실체도 없는 고민을 자신 또한 두더지처럼 지니고 살았다고 구술하였다. 취업불안 결혼, 자녀양육, 주택 마련 등 아직까지 닦쳐 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현재로 가지고 왔고 그 무게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이러한 고민은 미래를 향하여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 아니라 고민 자체에 깔려 죽는 것이라고 구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부모나 교수들도 자신들의 고민을 맡아 줄 대상은 아니었다.

연구자는 모든 고민과 불안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경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34 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오늘의 고민을 내일의 고민, 일 년 후의 고민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눈 후, 인간들이 가진 모든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고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구술하였다. 그러한 공간을 해방된 공간이라고 표현하였다. 해방공간에 생명력과 함께 건강한 자기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자신들은 두더지처럼 미련하게 고민이라는 눈덩이 짐을 굴리고 살지 않을 거라고 구술하였다. 4회기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모든 고민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과 고민하는 존재의 기쁨을 이야기 나누었다.

“고민은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상담센터 등 고민 상담을 해도 답은 찾기 힘들어요.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저랑 그림책 두더지랑 비슷해요. 자신에게 무엇이 닦쳐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눈덩이만 굴렸던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줄 존재를 찾기보다 고민을 맡아 줄 존재는 있다. 아직 신앙을 잘 모르지만 전 세계 독자들이 읽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내 고민과 인류의 고민을 맡아 주면 좋겠어요. 핵 위험, 기아와 전쟁 등 이러한 고민도 해결이요. 여튼 오늘 고민을 내려놓은 날이에요.” (도닥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실체도 모르고 그림자처럼 지고 왔던 걱정과 불안, 고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란 절대적 타자에 온전히 맡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했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통해 비로소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온 세상을 노래해 : 희락



Figure 5. The picturebook: All the world

「온 세상을 노래해」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다양함과 동시에 존재 하나하나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본 그림책에서는 사물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다. 그림책을 읽은 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토론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은 자기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 더 나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확립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온 세상을 노래해」에서는 사물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낸다. 사물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것은 모든 사물에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김춘수 시 ‘꽃’의 내용 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의 구절을 나눈 후, 창세기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동물들은 그 이름의 속성대로 자신의 존재 양식을 삼았다는 이야기를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공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 주거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구술하였다. 자신들은 분명히 이름이 있지만 언제나 집에서 ‘딸’ 학교에서는 ‘학생’ 그리고 남자친구에게서는 ‘여친’으로만 불려졌다. 이름과 함께 자기의 존재 의미도 사라졌다고 구술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자신의 행복과 꿈보다는 ‘학점 따기’ 기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듯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리고 감동하였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구술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지옥 같은 세계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재구성 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라는 제목에서 보듯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은 중요하다. 유대인의 학살을 다룬 다른 책들과 달리 극한 상태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생지옥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과학주의 시대 물질의 시대에 의미는 사라졌고 자신들 역시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미를 회복한 다는 것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용기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breath)되었다고 보았다.

“의미라는 단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나치(Nazi)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이 없었던 것보다 더 지독한 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도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야만 된다. 하지만 그의 미란 나 혼자 잘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주)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 고민 등은 모두 의미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의미의 부재라는 것을 구술하였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듯 자신들 역시 부모, 친지 등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미가 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졌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 이면서 삶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5.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 사랑



Figure 6. The picturebook: It's a gift to you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림책에서 선물은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 자기에게로 와서 의미화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받은 것이다. 하지만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떠한 재물이나 노력으로 보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무차별적이며 탈젠더적이고 경계를 뛰어넘는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모두 여대생들이다. 자신이 여성이기에 받았던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현재 양성평등이란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되고 과거 가부장적 질서와 남녀 차별은 사라지고 있으나 문화적 규범은 일종의 모세 혈관 담론(정해갑, 2005: 354)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는 이와 더불어 액체불안<sup>2</sup>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액체처럼 형태도 없이 곳곳에 스며든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정에서는 남동생이나 오빠에게 차별받았다고 구술하였다.

“아파트는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방 깊숙한 곳을 쓰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남동생이 써요. 나는 현관 앞이에요. 학교 갈 때도 남녀공학이었는데 좋은 것은 그들이 하고 생색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업 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아요. 저보다 학습 참여율도 낮고 답안지도 잘 쓰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보다 성적이 높은 거예요. 교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래요. K는 취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말이 되나요?” (똑바로)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 여성으로서 배려나 권리보다는 차별을 더 많이 받았음을 구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물을 값없이 나누어 주지만 의미 있게 사용된다는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선물은 또한 현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현재를 통해 가장 자신에게 은혜로운 존재의 언어로 서로에게 편지를 선물하였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선물은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라고 구술하였다. 성경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한다. 특히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장 시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노년의 지혜와 경륜도 찬양하지만 혈기 왕성한 헌신과 노력, 도전을 중시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너에게 주는 선물

2) '모호한 불안과' 유동하는 공포'를 주제로 한 오은경(2016)의 연구에서 바우만(Zygmunt Bauman)의 이론을 근거로 '노스페라투-영화'의 분석을 통해 근대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안의 원인을 가부장적 해체가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불안의 실체를 액체화의 과정으로 나타내었다.

야」 그림책을 통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과 함께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술하였다.

“빠삐용<sup>3</sup>이란 영화를 학교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는 빠삐용이 왜 벌을 받는지 잘 안 나와요. 판사가 당신의 죄가 뭔지 아냐고 물었죠. 빠삐용은 자기 죄를 모른다고 했어요. 판사는 시간을 낭비한 죄라고 했던 말이죠. 그림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친구들과 함께한 지금의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 중 태양이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아롱이)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값없이 받은 것들의 실제 의미와 모호한 불안의 실체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적 사유를 하지 못했음을 의미화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의 죄에 눈을 뜰 수 있고 매 순간 선물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6. 리디아의 정원: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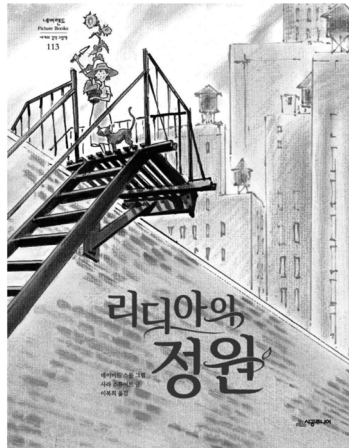


Figure 7. The picturebook: The Gardener

「리디아의 정원」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주인공 리디아가 도시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된다. 주인공 리디아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무뚝뚝한 외삼촌을 변화시킨다. 주인공 리디아는 창세기의 수많은 인물 중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요셉과

3) 앙리 샤리예르(Henri Charrière, 1906-1973)가 쓴 반(半)자전적 소설인 ‘빠삐용(Papillon)’(1969)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에스더를 떠올릴 수 있다. 에스더의 히브리 본명은 ‘하닷사(Hadassah)’이고 ‘도금양나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도금양나무의 꽃은 별과 비슷하다. 그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에스더는 후일 성장하여 왕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였다. 에스더는 뛰어난 용기와 지혜를 지닌 인물이었다. 리디아 역시 에스더와 같은 용기와 지혜를 지녔다. 경제공황 시대에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기보다 도금양 나무의 꽃처럼 여러 사람의 행복의 꽃이 되었다. 그리고 무뚝뚝한 외삼촌을 변화시켰다.

리디아는 요셉을 떠올리게 한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이란 낯선 땅에 유배되었지만 총리대신이 되었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근동에 수많은 사람을 기아의 고통에서 구해낸다. 그리고 그는 왕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리디아와 대치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과 요셉을 동일시하거나 에스더를 동일시하였고 리디아의 주변 인물들과 연결시켰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주로 자신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에스더와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땅은 인간의 소유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고 가꾸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 구술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언제나 불안하였다. 그들은 취업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에서 그들은 도피하고 싶어 하였다. 자신과 문제를 분리시켰다. 하지만 에스더와 요셉이 자신의 선 땅에서 자신의 민족과 많은 이방인을 구했듯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딛고 있는 현재에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자 빛이 되겠다는 의미로 구술하였다.

“종종 이민 가고 싶었고 왜 이런 땅에서 내가 태어났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원망도 하고, 이왕 부잣집이나 미국 같은 곳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전 요셉보다 에스더에게 끌려요. 포로였지만 왕비가 되고 여자지만 용기와 지혜가 있잖아요. 자신의 영화를 자기와 가족들만을 위해 쓰지 않았잖아요, 자기 민족 백성들을 구하는 데 썼죠. 리디아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몹시 두렵고 불안했을 텐데, 에스더도 리디아도 해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취업을 해서 독립해서 많은 돈을 벌 생각만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떡바로>님이 어려운 가정에서 봉사한다는 말을 듣고 깜놀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을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에스더가 준 교훈이에요.” (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선 땅에서 우리 사회가 지닌 불평등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피하기보다 직면하고 분리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리디아와 비슷한 삶의 태도를 가진 성경 인물들과 동일시를 통해 낙심과 교만에서 벗어나 내가 서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었다.

## 7. 미스 럼피우스 : 화평과 양선



Figure 8. The picturebook: Miss Lumpius

「미스 럼피우스」의 주인공 미스 럼피우스는 자신이 밟길 닿는데 마다 꽃씨를 뿌렸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었다. 이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마가복음 16:15)하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땅끝까지 기독교를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전투적 메시아니즘(messianism)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를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의 생애가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사도 바울 그리고 개화기 때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과 미스 럼피우스의 이야기를 교차하여 들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능력 밖이라며 공통적인 구술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구술을 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것은 세계를 화평으로 넘치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미스 럼피우스가 꽃을 피우는 걸 저는 그냥 꽃씨를 뿌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미스 럼피우스의 꽃길 여행과 바울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한 선교사 고

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막연한 이야기가 확 밝아 왔죠. 그 사람들이 제가 바로 선교사가 뿌린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프리카 같은 어려운 곳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그들을 돕는 것을 보았어요, 개화기 때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박사는 한국에 오기 위해 약혼자와 파혼했다고 해요. 저도 거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씨를 뿌려야겠다. 꽃씨를 잘 가꾸어야겠다. 생각해요.” (아롱이)

위의 기술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꽃씨를 뿌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스 럼피우스와 사도바울 그리고 조선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같이 구성하였다. 그들 스스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찾아 제시하여 함께 읽어보았고 선교사들의 꽃씨가 어떻게 꽃 피워졌는지 의미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삶 역시 척박한 우리 사회에 작은 꽃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개인의 삶도 사회, 정치 등도 화평과 양선을 지닌 종교적 세계관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의미를 구성하였다.

## 8. 토끼의 의자: 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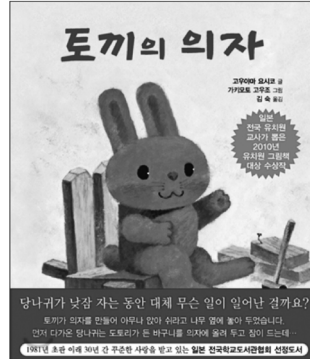


Figure 8. The picturebook: The Giving Chair

「토끼의 의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면 그 총량은 늘어난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신을 내어 주고 온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자기 것을 내어 준다는 양선의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사랑과 물질도 나누면 더 커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토끼의 의자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유하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전지전능을 의미하지만 이보다 앞선 것은 굶주려 지친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유형을 배격하지 않았다.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된 것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축원하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영과 육, 물질과 정신의 통합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물질의 나눔은 고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사유를 확장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정신적 풍요와 함께 물질적인 만족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살았음을 고백하였다. 지나치게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성공만을 바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신세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듯 양극단을 통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을 이질적인 것들을 통합시키는 힘을 부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하나님이 왜 신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성까지 동시에 지녔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게 되었다. 신성과 인성이 통합되어야 하듯 자신들의 이분법적 사고도 통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라치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고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고 지역을 구분하는 구별짓기라고 구술하였다. 구별짓기는 양극단의 한쪽에 서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분법적인 것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기회주의라고 낙인찍혔다.

“극단적으로 갈라졌어요. 친구 사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편이든 저편이든 서야 되어요. 지금 대학에서 가장 심각한 게 취업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게 남녀 갈등이에요. 서로 협조하긴커녕 서로 혐오해요. 정치 이야기도 그래요. 양쪽을 절충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저쪽 편이냐며 이상하게 보아요. 절충주의자, 기회주의자라고 해요. 마음과는 다르게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편협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지고. 토끼의 의자는 그냥 가진 것을 나누면 도토리 알밤이 되듯, 총 효용의 증가를 오병이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신과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똑바로)

위의 기술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토끼의 의자」에서 나눔의 중요성과 함께 물질과 정신 통합의 중요성을 동시에 깨달았다고 구술하였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만을 중시하지 않는다. 하늘나라가 중요한 만큼 이 땅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 하늘과 땅의 통합, 이원론 극복과 모색의 방안인 의미의 변증법적인 세계관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통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편협한 세계관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안목으로 양극단을 통합하고 분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배웠다고 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담긴 그림책을 이용하여 비기독교인 여대생들의 세계관 내용과 그 변화를 보고자 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비기독교인이었으나 그림책을 읽고 이와 연계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사유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그들이 새롭게 구성한 세계관과 기독교적 정체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심령 안에 기독교적 세계관의 씨앗이 뿌려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장과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씨앗에 대한 논의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인간이 학습하지 않고 깊게 사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본유관념(本有觀念)인 아이디어<sup>4</sup>라고 구술하였다. 데카르트는 인간에게는 선형적으로 주어진 고유관념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세계를 파악한다고 기술하였으며 칸트 역시 인간은 외계의 사물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열두 가지 범주를 통해 판단한다고 보았다(Descartes, 1981 ; Kant, 197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성경에는 문외한(門外漢)이었으나 그림책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사유를 전개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태동하였다. 이러한 씨앗의 발아 배경에는 자유스러운 토론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는 재귀적 자기성찰(self-reflection) 과정이 있었다. 재귀적 성찰의 과정은 그림책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화하고 그것에 빚대어 자기 이야기를 풀어감으로써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는 데는 성경의 가치와 진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씨앗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으로 구조화되어있다(고영삼, 2020: 98 ; 유재경, 2018: 123).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들에게는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비유(마 13:1-23)를 사용했듯 기독교적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그림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와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접목시키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idea'는 일반적으로 관념, 아이디어 등으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 인식의 대상으로 '관념'과, 대상 파악의 수단으로써 인식하는 '아이디어'로 구분하고자 한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 확립에 있어서 건전한 대중문화의 중요성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회에 다닌 적이 없지만 그들의 언어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모세의 기적’과 같은 언어들이 표출되었다. ‘모세의 기적’은 응급차나 소방차와 같이 위급한 현장에 출동한 차량에 의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길을 터주는 장면과 같다고 구술하였다. 최근 기사나 방송에서 그러한 장면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사용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지칭하다. 우리나라도 선한 사마리아인법률(the good Samaritan law)을 응급의료법률 제5조의 2항에 담고 있다. 이는 타인의 위험을 구함에 있어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해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들에게 민사책임을 묻지 않은 법 제도이다(김천수, 2014 ; 31-32). 이처럼 대중문화에 안에서 공동체 사유는 중요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통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은유이다.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 상징이나 은유를 만들고 전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모세의 기적’은 대표적인 은유이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상징이나 은유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계층 분열, 소득 양극화는 물론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무수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사회통합 기술이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문제와 문제를 공유해야 한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메타포의 생산이 필요하다.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는 시대에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메타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외에도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 장치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메타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중매체는 인간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고 물신주의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성장시키기도 한다. 성경은 창조력의 보고이다. 무수한 메타포가 담겨 있다. 이러한 메타포를 좀 더 발굴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그림책은 물론 동화,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스 미디어(mass media) 발굴의 노력이다. 현재 매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이 삶의 좌표를 잃고 방황할 수 있다. 더욱이 매스 미디어에 생산하는 비생산적이고 비윤리적인 담론 등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다. 한국의 교회는 순결성을 잃고 과학주의, 경제주의와 같은 바빌론의 음녀와 관계를 맺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의 순수함을 내포한 흥미로운 매체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접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대중매체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협의회 또는 교회가 연합하여 펀드나 단체 등을 조성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매체를 체계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세계관이 내포된 그림책을 이용하여 그림책과 성경의 가치를 통합한 토대를 구축했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여대생이라는 점이다. 비기독교인 여대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경험은 살피지 못하였다. 남녀 성별에 따른 기독교 세계관의 성향의 차이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의 발견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 고 문 헌

- 강은주 (2000). 기독교 그림책의 필요성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1), 115-132.
- [Kang, E. J. (2000). A Study on Need of Christian Picturebooks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1), 115-132.]
- 고영삼 (2020).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살펴 본 한국 교육의 문제와 기독교 대안 교육 모색. **통합연구**, 22(1), 97-119.
- [Go, Y. S. (2020). Education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Alternative Education from a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22(1), 97-119.]
- 김천수 (2014).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15(2), 31-60.
- [Kim, C. S. (2014). Exemption from Civil Liability in the Good Samaritan Law,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15(2), 31-60.]
- 김홍근 (2011). 191-218 : 소그룹모임 활성화를 통한 대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형성 방안 : 한세대학교 동지모임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6), 191-218.
- [Kim, H. K. (2011). A Study on Christian Worldview Formation Plan through Activation of Small Group Meeting for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Nest Meeting" in Hansei University. *Theology and Praxis*, -(26), 191-218.]
- 신국원 (2004).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전망. **總神大論叢**, 24(-), 130-150.
- [Shin, K. W. (2004). A view of the Reformed Christian Worldview.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24(-), 130-150.]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Shin, K. W. (2005). *Nicodemus' Glasses*. Seoul: IVP.]
- 유경상 (2020).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원리. **통합연구**, 22(1), 52-75.
- [Yue, K. S. (2020). The Principle of Christian Worldview Education for Next Generation.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22(1), 52-75.]
- 유재경 (2018).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 세계시민교육. **기독교사회윤리**, 42(-), 95-123. **기독교사회윤리**, 42(-), 95-123.
- [You, J. Y. (201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Christian World-view.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2(-), 95-123.]
- 유재연·변수정·이소영·최인선·배은경·이지연 (2019).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23.

- [Yu, J. E., Byeon, S. J., Lee, S. C., Choi, I. S., Bae, E. K. & Lee, J. Y. (2019). *Analysis of Population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19-23.]
- 이수형·현은자 (2022).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적 조명. **신앙과 학문**, 27(2), 105-135.
- [Lee, S. Y. & Hyeon, E. J. (2022).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Faith & Scholarship*, 27(2), 105-135.]
- 이상민 (2021).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자크 엘뤼의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6(1), 227-248.
- [Lee, S. M. (2021). Analysis on the New Mythologies in the Technological Society - Around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Faith & Scholarship*, 26(1), 227-248.]
- 전광식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 [Jeon, J. G. (1998). *The Joy of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Learning*. Seoul: CUP.]
- 정대현·신원애·임희수 (2014). 기독교 세계관적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42), 161-194.
- [Jung, D. H., Shin, W. A. & Im, H. S. (2014).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Model by a Christian Worldview : Focusing on the Art Experience Part of 5-Years-Old Nuri Curriculum.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2), 161-194.]
- 정해갑 (2005). Foucault, Discourse, and the Technology of Power. **비평과이론**, 10(2), 333- 356.
- [Jeoung, H. G. (2005). Foucault, Discourse, and the Technology of Power.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 10(2), 333- 356.]
- 조용훈 (2005).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문화연구**, 10(-), 7-23.
- [Hn, J. Y. (2005). What is the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cultural Studies*, 10(-), 7-23.]
- 현은자·김주아 (2019).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텝토의 <빛나는 아이>(2016) 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41-73.
- [Hyun, E. J. & Kim, J. A. (2019). Interpretation of Javaka Steptoe's (2016) Based on Vanhoozer's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0(2), 41-73.]
- 현은자 (2003).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서울: 학지사.
- [Hyun, E. J. (2003). *Viewing Children's Literature from a Christian Worldview*, Seoul: Hakjisa.]
- 현은자·김정준·연혜민·김민정·김현경·장시경 (2019). **어린이 교육전문가가 엄선한 100권의 그림책**. 서울: CUP.

- [Hyun, E. J., Kim, J. J., Yeon, H. M., Kim, M. J., Kim, H. K. & Jang, S. K. (2019). *100 Picturebooks Carefully Selected by Children's Education Experts*. Seoul: CUP.]
- Ellul, J. (2008).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Paris: Economica.
- Flick, U. (2018).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London. CA: Sage Publication.
- Holmes, A. F.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Grand Rapids: Eerd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 Kant, I. (1976), *Kritik der Reinen Vernunft, Nach der Ersten und Zweiten Originall-Ausgabe neu Herausgegeben von Raymund Schmidt*, Hamburg: Meiner Verlag.
- Punzo, V. (1996). Jacques Ellul on the Technical System and the Challenge of Christian Hop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atholic Philosophical Association*, 70, 17-31.
- Ricoeur, P. (1985). *Temps et récit 3*. Paris: ÉDITIONS DU SEUIL.
- Stake, R. E. (2008). *Qualitative case studi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Strategies of Qualitative Inquiry*(pp. 119-149). CA: Sage Publications, Inc
- Sire, J. (2020).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6th, ed. Westmont, Illinois: IVP Academic.
- Sire, J. (1990). *Discipleship of the mind: Learning To Love God In The Ways We Think* (Paperback). Westmont, Illinois: IVP Academic.

#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그림책 프로그램 연구

## A Study on the Picturebook Program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지상선 (성균관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비기독교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 그림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기독교 세계관이 내포된 그림책을 이용하여 그림책과 성경의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다. 본 그림책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9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그림책 자체가 아니라 그림책과 성경 텍스트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감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을 생성하였고 이를 새로운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비기독교인 여대생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씨앗을 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할 수 있는 논의와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 콘텐츠의 보급, 기독교 상징과 은유의 개발과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적 세계관, 그림책 프로그램, 여자대학생, 이야기 정체성